

## 좋은 역사를 남기라(역대상 17:16~27)

### 역대상의 하나님 메시지

역대기(히:띠브레하야힘)는 ‘그 시대의 사건’이란 의미로 왕국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당시 율법학사이자 서기관인 에스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상은 다윗왕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시대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좋은 역사를 쓰기 위해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 앞에 태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히 존귀케 하셨습니다.

### 1. 역대상의 내용 구성(1~29 장)

역대상의 역사적 내용을 쉽게 이해하려면 먼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대상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다윗 왕가의 족보(1~9 장)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을 높이시고 천하에 알리시기 위해 다윗왕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의 족보는 다른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비해 가장 포괄적인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① 1:1~2:2 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야곱까지를 기록하였습니다. 1:1 에 아담, 셋, 에노스로 시작하여 2:1~2 에서 야곱 즉 이스라엘과 그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② 2:3~9:1~44 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기인 이스라엘의 지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자신을 위해 선택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족보를 함께 기록하게 한 이유는 다윗 왕가의 족보가 중심에 있고 그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중심적인 인물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 **(2) 다윗왕의 통치(10~29 장)**

다윗왕의 통치는 헤브론에서 7 년반 예루살렘에서 33 년 이렇게 약 40 년간 계속 되었습니다.(29:26~28)

- ① 사울왕의 죽음과 다윗왕의 왕위 등극(10~12 장)
- ② 기랴트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업적(13~16 장)
- ③ 성전을 세우려는 다윗왕의 소망(17 장)
- ④ 다윗왕의 정복 사업(18~20 장)
- ⑤ 다윗왕의 범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구조사(21 장)
- ⑥ 다윗왕의 성전 건축 준비(22:1~23:1)
- ⑦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한 레위인의 직무 위임(23:2~27)
- ⑧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왕의 유언(28 장): 솔로몬에게 성전건축을 하라고 유언하였습니다.
- ⑨ 솔로몬왕의 등극과 다윗왕의 임종(29 장): 다윗왕은 좋은 역사를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드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가문과 그 후손을 위하여 할 일을 다했습니다.

## **2. 역대상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역대상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 다양하게 숨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류 역사의 시조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1:1, 롬 5:14)**

“아담, 셋, 에노스(1:1).”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인류 역사의 시조 아담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롬 5:14)”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담은 서로 대조적인데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제 2 아담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롬 5:17~18) 인생 중에 참으로 복있는 사람은 제 2 아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얻은 사람입니다.

**(2)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1:3, 창 5:24, 히 11:5)**

역대상 다윗의 족보에서 1:2 은 에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자기 역사를 쓰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입니다. 에녹의 승천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장차 승천할 것을 예표합니다.(고전 15:51~53)

**(3)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받은 다윗왕은 목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11:2, 10:11,16)**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11:2)”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세움받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의 목자가 되십니다.(요 10:11,16)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안을 열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3. 역대상의 중요한 영적 교훈**

역대기의 전체적인 교훈은 성전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나라의 형편, 개인, 가문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1) 기록된 이름과 족보 이야기는 인생이 태어나 사는 동안 좋은 자취와 업적을 남겨야 함을 교훈합니다(1~9 장)**

**(2) 기도로 환경과 인생을 바꾼 야베스(4:9~10)**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그 가문과 그 이름에 맞지 않게 어렵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환경과 인생을 복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방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3) 인생의 태도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5:1~2)**

태도가 나쁜 야곱의 장자 루우벤은 축복의 명분인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빼앗깁니다.(5:1~2) 우리 인생의 태도에 따라 저주와 축복이 분배됨을 교훈합니다. 태도가 불량한 사람을 마냥 끝까지 기다리시거나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기업과 자기 축복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4) 누구나 때가 되면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29:28)**

복 있는 사람은 죽음 준비를 잘하고 의미 있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입니다. 지혜자란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것을 교훈삼아 믿음으로 지혜롭게 자기 역사를 쓰며 살아야 합니다.

## ◎ 결론

다윗왕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여 좋은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기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① 인생은 누구나 자기 역사를 잘 써야합니다. ②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주신 복도 빼앗깁니다.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태도가 나쁘면

축복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③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할 때는 다윗왕도 징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이 버림받지 않음은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좋은 역사 즉 좋은 신앙의 자취와 좋은 업적을 남기며 다윗처럼 후손을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